

[2000 OMC 저녁집회]

첫째 날 : 변화되는 교회의 사명

멜 로렌츠 목사 / 본문 : 고후 3:12~18 / 페이지 수: 3

우리 삶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강박한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됩니다.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꼬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 역사에 대해 ‘우리가 저와 같은 현상으로 화하여 변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가장 큰 기쁨은 교인들이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잘 이끌어 주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산위에 선 모세와 예수

이 시간, 성경에 있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모세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영적 생활의 시작은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떨기를 봤을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만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시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늘로 가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 오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산으로 사람들은 데려가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공개하시며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산은 사시사철 때때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것은 크고 우리 위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산은 영원성에 대한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이 주는 또 하나의 이미지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 산에 임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산 밑에 서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심과 영원성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 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을 맞대고 난 다음의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기적적인 사건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38년 동안 사람들은 인도하여 드디어 약속의 땅 앞까지 갑니다. 그 약속의 땅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율법과 은혜

또 다른 산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변화되십니다. 그 얼굴이 마치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를 그 엄청난 영광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과 마태복음 17장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는 산 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산 위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도 구름이 있고 마태복음 17장에도 구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있고 마태복음 17장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4장에는 율법의 판이 두 개 있었다면 마태복음 23장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율법을 구하려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산에 관한 것을 수 년 동안 머리 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을 데리고 변화된 산으로 올라가야 하고 우리는 변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산으로 이끄는 지도자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타락하고 죄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회를 다시 세워 나가면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지도자를 키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더 높은 인생관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 시켜주시는 그 수준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산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산을 한 번 그려 보십시오. 알프스나 록키산처럼 바위가 많은 산, 중장비를 가지고 올라가는 산을 그리지 마십시오. 소수의 엘리트 몇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라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산을 그리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은 적은 누구든지 인생을 통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을 그리십시오.

타락, 구원, 천교, 성숙의 4단계

그 산을 오르는 과정에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그 산의 밑바닥에는 타락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산 아래에 있습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내듯,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이끌어내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산을 오르도록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자리로의 이동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산을 조금 더 올라가면 주위 사람들과의 친교라는 단계에 오르게 됩니다. 교제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와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의 관계를 이루게 될 때 또 다른 전환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함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산을 더 올라가면서 성숙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성숙의 증거가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공부하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또한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변화되도록 우리 자신을 그 분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화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나타낼 때, 우리의 얼굴에 그분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영광스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